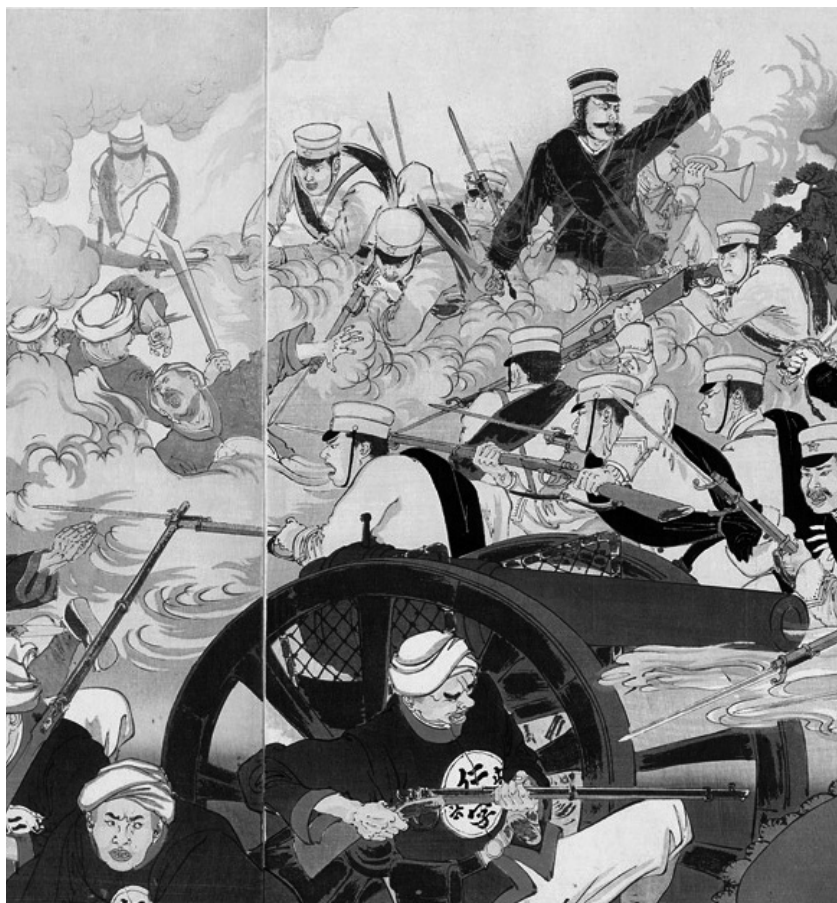


2

모멸, 취미, 그리고 동경에서 위협으로

— 근대일본 지식인의 중국 표상

류젠후이



■ (위) 청일전쟁을 묘사한 그림

■ (오른쪽 페이지 위 왼쪽부터) 잡지 『태양』의 창간호, 다니자키 준이치로의 『인어의 탄식』 삽화, 다케우치 요시미



1. 근대일본 중국 표상의 변천

1) 전쟁 이전 중국 표상의 세 가지 흐름

아주 오래 전에 입당(入唐)·입송(入宋)했던 승려들이 남긴 도항기록은 접어 두고, 이른바 근대 일본인이 기록해 놓은 다양한 중국 ‘표상’을 살펴보면 시대별로 세 가지 정도의 흐름이 확인된다.

먼저 쇄국정책이 폐지되고 유럽과 왕래하게 되는 시점인 안세이개국(安政開國, 1858) 이후 분큐(文久, 1861~1864) 연간을 거쳐 메이지(明治, 1868~1912)로 개원(改元)하기까지를 제1의 흐름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 기간 동안에는 수많은 사절과 유학생이 유럽 곳곳에 파견되었다. 그들이 기향지인 상하이나 홍콩에 대해 남겨 놓은 기록의 일부는 근대 일본인의 중국에 대한 최초의 ‘표상’이다. 또한 같은 시기에 유럽으로 가던 항로의 경유지로서가 아니라 어디까지나 내우외환이 심각해져 가는 중국, 특히 열강들이 조차지를 형성하고 있던 상하이의 사정을 ‘탐색’할 목적으로 몇 차례 사절이 건너갔다. 다카스기 신사쿠(高杉晋作)의 『상하이 오록』(上海五録)처럼 당시 탐방에 참가한 사람들의 일기나 견문록 역시 근대 초기의 귀중한 중국 기록이 아닐 수 없다.

제2의 흐름은 청일전쟁에서 러일전쟁에 이르는 10여 년을 상정할 수 있다.

* 지은이 | 류젠후이(劉建輝) 1961년 중국 랴오닝성(遼寧省) 출신. 고베대학교대학원 박사과정 수료. 문학박사. 베이징대학교 비교문화연구소 부교수를 거쳐 현재 일본 국제일본문화연구센터 준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주로 중일비교문학·비교문화를 연구하고 있으며 저서에 『귀국자 나가이 가후』(『帰朝者・荷風』, 東京: 明治書院, 1993), 『마도(魔都) 상하이—일본 지식인의 '근대'체험』(『魔都上海—日本知識人の「近代」体験』, 東京: ちくま学芸文庫, 2010) 등이 있다.

이 시기에는 전지보고(戰地報告)를 비롯하여 전쟁 상대국의 사정을 소개하는 내용, 또는 전후 처리에 관한 분석처럼 다양한 담론을 창출해 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청일전쟁에서 패하게 되면서 중국 국내의 개방이 가속화되었는데 이러한 시류 속에서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각 지방을 ‘만유’(漫遊)하던 일부 중국 연구자와 탐험가들이 남긴 보고서나 여행기 등도 다수 전해지고 있다.

그리고 다이쇼 중반 무렵부터 일기 시작한 제3의 흐름은 다소의 기복을 보이며서 태평양전쟁 종식 직전까지 이어진다. 이때 마침 중국과 일본과의 근대적 광산업이 잇달아 형성되었기에, 상당한 수의 작가나 시인들이 여행회사의 알선 등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중국을 방문하고 각자의 인상이나 감상을 남겨 놓았다. 한편 일본 군부의 폭거가 속출하면서 중일 간의 전화(戰火)가 점차 격해지자, 문학자 중에서도 단순한 여행객이 아니라 중군기자나 중군작가의 신분으로 대륙으로 건너가는 경우도 있었다. 그들이 남긴 다채로운 기록 역시 중요한 중국 ‘표상’의 하나로서 간과할 수 없다.

2) 중국 표상의 내용과 특징

이상, 근대 일본인의 중국 ‘표상’을 둘러싼 세 가지 흐름을 역사적 요소에 따라 시대별로 구분해 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이제부터 각각의 흐름을 구성하고 있는 내용과 표현상의 특징에 관해 간략하게 살펴보겠다.

막부 말기 해외파견 사절들에 의한 ‘표상’부터 알아보자. 이때의 기록은 여러 가지 시대적인 제약이 있기도 해서 대부분이 정기항로의 기항지였던 상하이나 홍콩에 집중되어 있다. 그리고 아편전쟁 이후 열강과 중국과의 정치적 혹은 군사적 역학관계로 인해 사절들이 주로 관심을 가진 것은 서양세력 유입의 창구로 기능하는 두 도시의 상황이었다. 따라서 기록의 대부분이 근대 자본주의 발달에 대한 ‘경탄’이 차지하고 있다. 다만 이 시기는 아직까지 예전의 ‘중화’에 대한 경외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시점이어서 현지에 팽배해 있는 열강과 중국 간의 지배와 피지배라는 상하관계를 지적하면서도 거리의 재래문물이나 직접 만나 본 중국 지인들에 대해서 누구나 호의적으로 기술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이 시기 사절들의 기록 절반 정도가 ‘한문’이고 나머지 대부분도 ‘한문혼독체’로 되어 있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런 문체는 당시 일본인들이 외부 세계를 파악할 때 유일하게 불편함 없이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수단이였다. 중국의 ‘전통’과 강하게 결부되어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작가들이 여전히 ‘늙은 대국’을 철저히 무시할 수 없는 입장이었다. 그리고 이런 자세는 근대 이전 승려들이 남긴 ‘중화’ 숭배적 기술 또는 메이지기에 범람하게 되는 ‘지나’(支那) 멸시적 담론들과 비교했을 때, 비교적 대등한 관계를 보이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사절들이 서술해 놓은 일련의 ‘표상’에 의해 중국이 서양과 함께 처음으로 ‘발견’되었다고들 하는데, 최초의 등신대로서의 중국 ‘발견’을 가능케 한 요인은 전무후무하다고 할 수 있는 대등한 관계 정립에서 나온 일종의 ‘객관성’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이 시기 이후 중일 간의 국력이나 국제적인 지위가 급속하게 역전된다. 특히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압승하고 중국이 대패하는 의외의 결과가 전개되면서 그러한 ‘객관성’은 붕괴되어 버리고 만다. 소위 내셔널리즘의 고양을 배경으로 한 ‘차별적’인 중국상이 등장하게 되는 것이다. 이는 시기적으로 앞서 제시했던 중국 ‘표상’ 제2의 흐름에 해당한다. 여기서는 이른바 일본 내지 일본인의 내셔널 아이덴티티를 확립하기 위해, 아시아 제국(諸国) 특히 중국과 조선은 그야말로 ‘문명국’인 일본을 현재화(顕在化)하기 위한 하나의 비교대상으로서, 철저하게 근대 국민국가의 논리에 의해 재단되었다. 그 결과 중국과 조선 양국 모두 일본에 의해 ‘교도’(敎導)되어야 할, ‘산만’하고 ‘나태’하며, ‘불결’하다는 국가상 내지는 국민상이 만들어졌고, 이는 그 후 오래도록 일본 언론계에 지속적으로 유포되었다. 나아가 양국의 국내, 특히 중국의 대표적인 지식인들에게 그 언설이 일부 유포되어 내면화되기까지 했다.

하지만 이렇게 메이지시대에 ‘발견’된 다양한 중국 혹은 중국인의 결점, 그 중에서도 국민국가의 논리에 의해 철저히 부정된 ‘막연’한 국가와 공공의 관념, ‘타락’과 ‘향락’에 젖은 사회풍속, ‘불결’하고 질서 없는 서민생활과 같은 국민적인 ‘특질’이 다이쇼(大正, 1912~1926) 중반기에 접어들면서 급변하게 된다. ‘근대’를 상대화하는 귀중한 가치를 지닌 지표로서 일본의 작가와 시인들에게 ‘평가’를

받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대전환이 이루어지게 된 시대적 배경으로 우선 러일전쟁 이후 국민국가의 통제가 더욱더 완고해지면서 많은 지식인들이 일본 내의 ‘균일’하고 ‘폐쇄’적인 사회공간에 대하여 강한 불만을 품게 되었음을 들 수 있다. 또 메이지유신 이래로 반세기 동안 진행되었던 ‘문명국’ 경영이 드디어 궤도에 오르기 시작하면서 국민들 사이에서 일종의 주변국에 대한 우월감에서 오는 ‘여유’가 생겨나기 시작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문학이나 예술 분야에서 서양의 세기말적 감성이 거둬 소개되고 기존의 다양한 ‘악’을 재인식하는 하나의 가치관이 형성되었다. 이러한 의미에서 제3의 흐름에 속하는 중국 ‘표상’은 일면 메이지기의 중국 담론을 전도시킨 듯이 보이면서도 근본적으로는 여전히 일본을 중심으로 한 오리엔탈리즘 위에 서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면서도 한편 이 당시 작가나 시인들이 서양의 세기말적 감성에 의존해 가면서 전도된 가치관으로 인해 종래와는 전혀 다른 ‘퇴폐미’를 중국에서 재발견한 것도 사실이다.

2. 모멸에서 취미로 : 메이지, 다이쇼 시기의 중국 표상

1) 일본인상의 음화(陰畵)로서의 중국상

근대의 일본 혹은 일본인은 국민적 정체성을 성립시키기 위해 주로 두 가지 작업을 수행했다. 하나는 서구의 여러 사물을 모델로 해서 스스로를 그 기준에 맞추려 했던 것이고 또 하나는 주변 여러 나라를 철저하게 차별화해 스스로의 우위성을 만들어 내려 한 것이다. 이런 작업들은 이른바 근대일본의 모토인 ‘탈아입구’의 근대화 노선과도 일치하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일본인의 정신구조에 큰 영향을 미쳤다. 그 중에서도 후자는 ‘문명국’ 일본을 표면화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실로 다양한 표상을 통해 수없이 차별화된 아시아상과 중국상을 만들고 유포하였다.

일본 혹은 일본인을 하나의 통일된 ‘공동체’로 파악하여 유럽과 동아시아 제반 국가와 비교하면서 다양한 특질을 논평한 담론은 부분적이기는 하지만 이미 메이지 초기에 후쿠자와 유키치(福澤諭吉)에 의해 형성되었다. 하지만 후쿠자와는 어디까지나 문명론이라는 틀 안에서 그러한 특질을 다루었던 것으로 결코 처

시가 시게타카(志賀重昂)	『일본풍경론』(日本風景論, 1894)
우치무라 간조(内村鑑三)	『일본 및 일본인』(日本及び日本人, 1894. 이후 『대표적 일본인』[代表的日本人]으로 제목 수정)
니토베 이나조(新渡戸稲造)	『무사도』(武士道, 1899)
구라쿠 도진(苦楽道人)	『일본국민 품성수양론』(日本国民品性修養論, 1903)
오카쿠라 텐신(岡倉天心)	『차에 관하여』(茶の本, 1906)
하가 아이치(芳賀矢一)	『국민성 십론』(国民性十論, 1907)
하가 아이치(芳賀矢一)	『일본인』(日本人, 1912)
엔도 류키치(遠藤隆吉)	『일본의 '아'』(日本我, 1912)

음부터 ‘일본인론’ 자체를 목표로 한 것은 아니었다. 그러한 의미에서 이른바 일본 내지 일본인론의 본격적인 출발은 역시나 메이지 20년대 후반, 특히 청일전쟁 후에 고양된 내셔널리즘과 궤를 같이한다고 생각된다.

부연하자면, 미야케 세쓰레이(三宅雪嶺)의 「진선미 일본인」(真善美日本人, 1891)이나 「위악추 일본인」(偽悪醜日本人, 1891)은 시기적으로 조금 이르다고 할 수 있겠으나 그 외의 대표적인 ‘일본인론’은 대부분 청일전쟁에서 러일전쟁 사이의 10여 년 사이에 간행된 것들이다. 이는 하나의 붐을 이룰 수준이었고 성행의 정도는 위의 일람표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저명인의 ‘대표작’뿐만이 아니다. 예컨대 청일전쟁이 발발한 해에 창간된 일본 최초의 대형 종합잡지 『태양』(太陽)을 보면, 간행되자마자 가네코 겐타로(金子堅太郎)의 「일본 인종의 특성」(「日本人種の特性」, 1권 9·10호)을 비롯해 기시모토 노부타(岸本能武太)의 「일본인의 다섯 가지 특질」(「日本人の五特質」, 2권 7·8호), 다케토미 도미토시(武富時敏)의 「일본국민의 자력」(「日本国民の資力」, 2권 7호)과 같은 글들이 게재되고 있다. 또 이후로도 다카야마 조규(高山樗牛)의 「일본주의를 찬양한다」(「日本主義を賛す」, 3권 13호), 이노우에 데쓰지로(井上哲次郎)의 「일본민족 사조의 경향」(「日本民族思潮の傾向」, 5권 1·2호) 등이 수록되게 된다. 이 시기에 나타난 일본 혹은 일본인론의 과열 양상을 단적으로 보여 주는 예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일본인론 속에서 다양한 일본과 일본인에 관한 ‘특질’이 논의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특질들은 어떻게 추출되었던 것일까? 당연히

그 하나하나를 제시하기 위해서는 비교의 대상, 즉 ‘타자’의 존재를 필요로 했다. 그리고 근대국가로서 이제 막 발을 떼기 시작했던 일본은 그 상대를 유럽 열강이 아닌, 아직 ‘문명’에 개안하지 못했던 조선이나 중국과 같은 주변국에서 찾았다.

예를 들어 창간한 지 얼마 되지 않았던 때 『태양』에서는 조선의 특질을 “첫째, 국가적으로 속국의 역사를 가지고 독립된 역사를 가지지 못함”, “둘째, 국민은 게으르고 검약의 덕이 없으며 문약해서 상무의 기상이 없음”, “셋째, 국민은 경박하고 염치가 없으며 비열해서 절의(節義)가 없음”, “넷째, 정치가는 봉당을 만들어 늘 서로 다투고 절대적으로 국가적 정신이 없음”¹⁾ 등의 열 개의 항목으로 정리하였다. 그리고 그에 앞서 그 기준이 되는 국가다운 모습, 즉 일본으로 대표되는 ‘독립 자주의 나라’라는 국가상이 다음과 같은 10개 항목으로 제시되었다.

- 첫째, 국가는 독립의 역사를 가질 것
- 둘째, 국민은 검약 상무의 기상이 풍부할 것
- 셋째, 국민은 염치 절의의 정신이 풍부할 것
- 넷째, 정치가는 공덕을 중히 여길 것
- 다섯째, 경제상의 요소가 있을 것
- 여섯째, 군사방비의 요소가 있을 것
- 일곱째, 교육상의 요소가 있을 것
- 여덟째, 교통운송의 편리를 가질 것
- 아홉째, 종교상의 요소가 있을 것
- 열째, 문학, 공예, 미술, 언어의 독립을 잃지 않을 것

이 열 가지 항목이 ‘독립의 요소가 없는’ ‘조선 왕국’을 재단하는 전제가 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그러나 바꾸어 말하면 모든 점에서 조선의 특질을 뒤집어 놓은 것에 지나지 않는다. 여기에서 ‘조선상’이 한 장의 사진의 음화(陰画)로 작용하고

1) 川崎三郎, 「朝鮮問題」, 『太陽』 1卷 7号, 東京: 博文館, 1895年 7月.

일본상이 그 양화(陽画)로 기능하고 있음은 누가 보아도 알 수 있는 구조이다.²⁾
그리고 이러한 구조는 일본과 중국과의 관계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그런데 각 항목의 내용이 조금씩 달라지기는 하지만 『태양』에서 시작된, 한 나라의 특질을 열 가지 항목으로 정리하는 ‘습관’은 이후로도 여러 방면에서 계승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앞서 언급한 하가 아이치의 『국민성 십론』이나 오마치 게이게쓰(大町桂月)의 「일본국민의 기질」(日本國民の氣質)에서도 일본의 국민성을 열 가지 항목으로 정리하여 제시하고 있다. 또한 그 영향을 받았다고 보여지는 중국 계몽사상가인 양계초도 미완이기는 하지만 「국민십대원기론」(「國民十大元氣論」, 1899)이라는 중국판 국민성론을 발표하였다. 그리고 하가는 이후 『일본인』이라는, 『국민성 십론』의 보론에 해당하는 저작을 발표하는데 처음에 기준으로 삼고 있던 열 개 항목을 ‘천황’, ‘가문’, ‘무용’(武勇), ‘수양’, ‘간이생활’, ‘동정’, ‘구제’, ‘공익’, ‘국가’라는 아홉 개 항목으로 고쳐서 논의를 보다 심화시키고 있다.

하가의 작업은 물론이고 실제 청일전쟁 이후에 시작된 일련의 일본 혹은 일본인론을 보면 주로 세 가지 요소가 특히 강조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 세 가지란 국가관념, 근로관념, 위생관념이다. 그리고 일본인들은 이러한 관념들을 예부터 갖추고 있었다고 하는 담론은 다른 작가들에 의해서도 여러 번 제시되었다. 이는 확실히 근대국가를 의식하고 그 기초라 할 수 있는 국민관념의 존재를 의도적으로 가시화하려는 것이었다. 그리고 앞서 말했듯이 그 가시화 작업은 또한 어디까지나 중국이나 조선에 대한 철저한 차별화를 통해 이루어졌다.

예를 들어 중국이나 조선은 이러한 관념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껏 ‘문명국’이 되지 못했다고 하는 논의가 『태양』을 비롯해서 많은 매체를 장식했다. 이는 당시 ‘언론’의 대세를 이루었을 뿐만 아니라 이후로도 오랫동안 중국이나 조선 관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다소 긴 인용이지만 그 중 몇 가지를 살펴보겠다.

2) 일본인의 ‘자기상’이 성립될 때 ‘조선상’이 그 비교대상이 되었고, 전자가 한 장의 양화였다면 후자는 항상 그 음화였던 구조에 대해서는 남부진(南富鎭)이 「근대 일본의 조선인상 형성—종합잡지 『태양』과 『조선』을 중심으로」(『近代日本の朝鮮人像の形成—総合雑誌『太陽』と『朝鮮』を軸にして—』, 筑波大学近代文学研究会 編, 『明治期雑誌メディアにみる(文学)』, 2000)에서 지적한 바 있다. 본 논문을 작성함에 있어 남부진 씨의 논고로부터 많은 사사를 받았고 이 지면을 통해 사의를 표한다.

지나 국민이 국가의 관념에 대해서는 참으로 막연하여 명료하지 않으며, 지나 국민은 불교에 의존하고 있어 국가 관념을 양성할 만하지 못하다. 또한 지나 국민은 우리를 일본 국민처럼 황실과 국가의 관념을 결합시키지 못한다. …… [일본 국민의] 국가 관념은 황실로 통일된 것이나 이에 반해 지나 국민은 그 황실과 국가를 완전히 별개로 보며, 이른바 국가의 최상의 이상으로는 평화와 질서를 잘 지키는 것으로 보아 주권자는 자국민이든 외국인이든 굳이 따지지 않는다.³⁾ 동양에서 행해지는 충군의 주의에는 두 가지 다른 것이 있다. 그 주의를 국가 기반 위에서 수립하려는 것과 개인적 이해 혹은 이득 위에 수립하려는 것이 그것이다. …… 첫번째 주의, 이를 칭하여 국가적 충군주의 혹은 더욱 적절하게는 군황주의라 하며 두번째 주의, 이에 이름 붙이자면 영리적 충군주의라 한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주의 중에서 첫번째 주의가 역사 이전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수천 년을 통해 시종일관 행해지고 있는 곳은 동양, 아니, 지구상에서 오직 우리나라밖에 없다.

고공(古公)의 마음, 인정(仁政)의 정신은 아마도 지니고 있을 터인데, 국가적 관념은 털끝만큼도 없다. …… 따라서 지나 인민의 이상에 있어서 국가적 관념의 흔적조차 없는 이유를 짐작함에 충분하다.⁴⁾

이상은 주로 국가관념에 집중된 것이긴 하지만 다른 두 관념에 대한 논의 역시 비슷한 맥락으로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다음에 인용하는 글도 중국인의 근로와 위생 등에 관한 의식의 결여를 새삼스럽게 강조하고 있다.

다행히 이번 전쟁 덕에 랴오둥, 조선 등을 만유할 수 있었다. 그곳에 가서 청결을 어느 정도까지 지키고 있는지 연구해 보니 너무나 의외의 모습이었는데, 랴오둥 반도 같은 곳은 도저히 말로는 그 불결함을 형용할 수 없을 정도이다. 불결함의 극치라 할 수 있으며 청결 혹은 불결하다는 의미 자체를 모르는 나라이다.⁵⁾

3) 中西牛郎, 「支那帝国の真相」, 『太陽』 2卷 1号, 1896年 1月.

4) 清野勉, 「支那国性由来」, 『太陽』 2卷 20号, 1896年 10月.

지나인 자질의 고약함은 세상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는 바, 자존심 세고 지극히 보수적이며 국가 공공이 얇고 사리사욕이 두텁다. 교활하고 산만함은 물론이거니와 아비하고 인색하고 인순고식(因循姑息)하다. 덜떨어져서 세세한 곳까지 신경을 못 쓰고 예부터 허례를 중히 여겨 겉치레에 익숙하다. 또한 일반적으로 불결함에 대해 신경을 쓰지 않는다. 문자로 표현하자면 돼지(豚)이고 별명은 찬(チャン)⁶⁾이라 하며 심지어는 금수에 비유하기도 한다. 또 세계에서 최하등 국민이라 부르는 사람도 있을 정도이다.⁷⁾

물론 이와 같은 담론은 결코 『태양』에서 시작된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태양』에 자주 등장하는 논객 중 하나인 오자키 유키오(尾崎行雄)가 10년 전 중국여행을 하고 기록한 『유청기략』(遊淸紀略)을 보면 이미 중국인의 ‘나태’나 ‘불결함’에 관해서 논하고 있다. 더 거슬러 올라가 메이지 초기의 후쿠자와 유키치가 쓴 문명론 중에서도 일부 비슷한 논평이 확인된다. 청일전쟁 이후에 이러한 일련의 담론이 대량 유포되는 현상은 전쟁에서의 승리라는 커다란 자신감을 배경으로 종래의 산발적이었던 논의를 보다 강고하면서도 선명하게 전개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잘 생각해 보면 이와 같은 중국에 대한 철저한 차별화가 실은 상당히 위험한 조작임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 몇 천 년 동안 스스로가 ‘스승’이라며 떠받들던 중국을 부정해 버리면 그 문명의 은혜를 받아 왔던 일본의 입지에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런 위험을 피하기 위해 유일하게 취할 수 있는 대책은 고대 중국과 현대 중국을 분리시키고 고대 중국의 참된 계승자가 원래 일본이라고 암시함으로써 중국을 부정하면서도 스스로를 정당화하는 일석이조의 방법이었다.

5) 岸本能武太, 『日本人の五特質』, 『太陽』 2卷 7·8号, 1896年 4月~5月.

6) ‘チャンコロ’(잔코로)의 약칭. ‘잔코로’는 중국인에 대한 일본식 멸칭. — 옮김이

7) 藤田剣峯, 『支那人の資質を論じて対支那策に及ぶ』, 『太陽』 4卷 5号, 1899年 3月.

지금 지나인을 보는 사람 중 그 예법이 무너져 있음에 놀라지 않는 자가 있을까. 실로 금전을 얻고자 함에 있어서는 아무리 그 몸을 불결하게 하고 그 행위를 비열하게 하더라도 마다하지 않는다. 허나 고개를 돌려 4천여 년 전의 옛날로 거슬러 올라가 고문학을 펼치고서 생각하고 또 생각해 보면, 오늘날의 모습과 너무나도 거리가 먼 것을 알 수 있다. 그들은 우아하고 아름다운 인민이고 예법으로 스스로를 지키던 인민이며, 어떤 점에 있어서는 서양인이 늘 칭송하는 그리스 인종과 닮은 점이 없지 않다.⁸⁾

여기서는 고대 중국 혹은 고대 중국인에 대해 상당히 ‘호의’적으로 서술하고 있는데, 이때 비교대상으로 부정되는 것은 동일한 ‘예법’을 무너뜨린 후대 중국과 ‘비열’하고 ‘불결’한 후대의 중국인이다. 그리고 ‘야만국이자 도리에 어긋난 나라인’ 중국과 ‘많은 결점을 가진’ 중국인에 비해 일본 및 일본인은 ‘모든 점에서 다르다’는 비교우위를 통해 스스로 ‘우아하고 아름다운 인민’의 지위를 획득한다.

물론 ‘모든 점에서 다른’ 중국과 일본의 최대의 ‘차이’ 역시 다양한 ‘실례’를 들어 증명하고 있다. 전쟁터에서의 일본과 중국 병사들이 보이는 행동의 차이로 예로 들며 일본인 병사가 ‘무용절린’(武勇絶倫)인 데 반해 중국 병사는 ‘규율이 없는 무리’이자 ‘몸을 사리는 것에만 급급’할 뿐으로 양자 간에는 ‘천지 차이가 있다’고 기술하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비교시점을 통해 일본 및 일본인이 대부분의 면에 있어서 중국, 중국인보다 ‘뛰어나다’는 것을 증명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입장을 역전시킴으로써 ‘일등국’ 일본이 ‘미개국’ 중국을 선도하고 ‘교도’해야 할 필요성은 자연스럽게 부상하게 되었다. 이른바 아시아의 ‘맹주’로서의 ‘사명’이자 ‘책무’인 것이다.

흔히 이야기되듯이, 19세기 백년간은 기본적으로 국민국가가 세계 각지에서 형성되고 강화되어 온 시기로 인식된다. 그 중 어떤 나라가 근대적인 국민국가 수준에 도달했는지를 규정하는 기준의 하나가 바로 그 나라의 ‘부국강병’의 실현 정

8) 小柳司氣太, 「支那文学一斑」, 『太陽』 1卷 12号, 1896年 12月.

도였던 듯하다. 따라서 ‘국가관념’, ‘근로관념’과 같은 정신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한때 열세로 평가되었던 군사력 면에서도 청나라를 넘어선 일본은 여러 영역에서 상대를 ‘제자’로 만들어 버림으로써 스스로 근대국가의 ‘선생’의 지위를 공고히 하였다. 또한 실제로도 그러한 입장에서 중국 등을 ‘교도’하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산만’하고 ‘나태’하고 ‘불결’했던 중국인이 다이쇼 시대에 들어오게 되면 새로운 시대의 문맥 안에서 완전히 다른 ‘오리엔탈리즘’의 대상으로 변한다. 그러면서 일본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종의 ‘치유’나 ‘데카당스’의 ‘미’(美)가 그 안에서 발견되고 새로운 ‘중국상’이 전개되기 시작한다.

2) ‘지나 취미’의 성립과 전개 : 다니자키 준이치로의 경우

일본문학에서 말하는 세기말은 대부분 메이지 중기에 발생한 서양전래의 탐미주의와 데카당스, 그리고 아르 누보로 일본에 귀향한 자포니즘을 가리킨다. 서양에 대한 수용의 일환이라고도 할 수 있는 이런 문학적 감성은 다소 시차를 보이기 때문에 누구도 유럽의 세기말적 문학이 일본 내로 연장·전개되고 개화했다고 해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다이쇼 시대가 되면 그 정수가 드디어 작가들에게 내면화되면서 수동적이 아니라 주체적으로 자기들만의 ‘세기말’을 만들게 된다. 이를 가장 잘 나타내는 것이 바로 ‘지나 취미’이다. 지나 취미는 일찍이 프랑스 자포니즘과 마찬가지로 소위 실체로서의 ‘중국’에 ‘왜곡-가공’, ‘억압-승화’와 같은 일련의 차이화와 찬양의 ‘재구성’을 통해 그로테스크하면서도 화려한 표상을 만들어 내는 패턴화된 ‘오리엔탈리즘’의 극치를 나타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상황에 비추어 다니자키 준이치로라는 매개를 통해 창작행위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는 작가의 상상력 속에서 ‘지나 취미’가 어떻게 발생하고 배양되었는지, 그 과정을 추적해 보고자 한다.

다니자키와 중국의 ‘관계’가 일찍이 어린 시절의 한문 소독(素讀)에서부터 시작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다니자키는 소학교 고등과를 졸업하기 전까지 니혼바시(日本橋) 가메지마초(亀嶋町)에 있던, 누키와 기치고로(貫輪吉五郎)가 경영하는 한문사숙 슈코주쿠(秋香塾)에서 『대학』과 『논어』를 비롯한 다수의

한적을 독파했다. 그러나 소년 시절에 배운 한자 소양이 그대로 발전해서 후년의 '지나 취미'로 변모된 것은 결코 아니리라 본다. 이는 어디까지나 일반적인 고전에 대한 교양에 지나지 않을 뿐, 작가의 정신적인 자질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계기가 필요했다.

그 계기로 지적되는 것이 바로 고등학교와 대학 시절에 읽었던 유럽의 탐미주의 문학과 또 그 영향을 받은 나가이 가후(永井荷風) 문학과와 조우이다. 그런데 필자가 생각하는 좀더 근본적인 계기는 다니자키가 이러한 문학을 탐독하면서 자신의 잠재적인 자질을 발견할 수 있는 일종의 정신적인 '계시'⁹⁾를 받은 것이라고 본다. 그리하여 마침내 '악'의 유심론(spiritualism)에 개안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일단 자신의 숨겨진 감성을 각성한 그가 어디까지나 교양으로 학습해 온 한자 소양을 다시금 반추하게 되면서 자신의 자질과 완벽하게 부합하는 풍부한 유태주의(décadentisme)의 세계를 그 안에서 발견하게 되었다. 따라서 다니자키가 문단 데뷔 당시에 몇 차례나 '중국 소재'를 사용하고 또 생애 전반에 걸쳐 그 '지나 취미'를 일관한 것은 우연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 그 세계의 배후에는 분명 그의 정신적인 '영양원'이 작용하고 있었던 것이다.

예를 들어 다니자키의 처녀작인 『문신』(『刺青』, 1910년 11월)의 주인공 세이키치(清吉)는 '광채 나는 미녀의 피부'에 '자신의 혼을 새기는 일'을 숙원으로 하는 문신사였다. 그러던 그가 오랫동안 찾아 헤매던 염원의 여성을 발견하자마자 제일 먼저 그녀에게 보여 준 것은 바로 한 장의 그림이었다. 그림에는 중국 역대의 악녀 중에서도 손꼽을 수 있는 달기(妲己)와 그녀 때문에 '처형을 당하기 직전에 있는 남자들이 정원에 앉아 있는' 장면이 묘사되어 있었다. 괴이한 그림을 눈앞에 두고 여주인공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눈동자가 빛나고 입술이 떨리며' '그곳에 숨겨져 있던 '자기'의 진짜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 그리고 '악'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거대한 무당거미를 등에 새김으로써 마성을 지닌 여자로 다시 태어나게 된다. 이 장면에서 세이키치는 '이 그림에는 너의 마음이 비춰지고 있어'

9) 野口武彦. 『谷崎潤一郎論』, 東京: 中央公論社, 1973.

라고 말하는데, 중국에서 가장 악독한 여성이었던 달기의 그림은 그녀에게 ‘자기 발견’의 계기를 준 하나의 기호라 할 수 있다. 또한 달기의 그림은 동일한 역할을 하고 있는 무당거미와 함께 이 작품을 근저에서부터 지탱하고 있다.

이처럼 중국에 전해지는 ‘전설’이나 ‘고사’를 다니자키식으로 ‘재이용’하여 독자적인 작품세계를 만들어 내고자 한 시도는 『문신』에 이은 두번째 작품 『기린』(『麒麟』, 1910년 12월)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 단편은 창작 당시에는 소설이 아니라 희곡으로 구상된 것이었다. ‘만천하를 깜짝 놀라게 할 작정’으로 썼다고 하는 이 작품에서 다니자키는 『논어』의 ‘덕을 좋아하길 여색을 좋아하듯 하는 자는 아직까지 내가 보지 못하였다’(吾未見好德如好色者也)라는 공자의 말을 인용한다. 그리고 이 말을 당시에 자주 인용되던 오스카 와일드의 아포리즘과 같은 감각으로 작품세계의 성립 ‘근거’로서, 또 증명되어야 할 ‘진리’로서 역이용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다니자키는 ‘악’에 대한 경계로도 해석되는 성인의 가르침을 완벽하게 반전시키고 그 시점에서 공자마저 ‘패배’시킨 상대인 여주인공 남자부인(南子夫人)을 반도덕적인 ‘아름다움의 마력’을 대표하는 상징으로서 재발견하고 있다. 전작에 가까운 ‘미(에로스)’의 왕국을 다시 한 번 구축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볼 때, 출발기의 다니자키에게 ‘중국 발견’은 종래의 ‘에도(江戸) 발견’과 거의 축을 같이하고 있으며, 양쪽 모두 이른바 ‘악’의 유미주의에 대한 개안이 이루어 낸 무한한 ‘미(에로스)’의 세계에 다름 아니다.

그리고 ‘에도’와 동등한 의미를 지닌 ‘중국’이라는 존재는 다니자키의 일생을 통해서 창작활동을 지탱하는 커다란 상상력의 원천이 되었다. 이는 다니자키가 한때 자신의 작품을 ‘사실적인’ 방향으로 전환시킴으로써 ‘스스로의 생활과 예술 사이에 무시할 수 없는 괴리’(『아버지가 되어』父となりて, 1916년 5월)가 생겨나게 되고 그 딜레마를 해소하기 위해 다시 한 번 ‘낭만적인’ 세계로 회귀하려 할 때에 다름 아닌 ‘중국 소재’를 통해 그 실마리를 찾았던 사실로부터도 알 수 있다. ‘중국 소재’의 작품이란 바로 1917년 1월에 발표한 『인어의 탄식』(人魚の嘆き)이다. ‘작자가 실로 노심초사하며’ 썼다는 이 소설은 ‘찬란하게 빛나는’ 순백의 피부를 가진 여주인공인 ‘인어’가 상징하고 있듯이 다니자키의 백인 숭배, 서양 동경

과 같은 취향을 단적으로 나타내는 작품이다.

그러나 이 작품에서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 그러한 서양 지향과 병행하는 형태로 존재하는 ‘지나 취미’적인 요소이다. 그것은 단순히 소설의 무대가 난징(南京)이고 주인공이 청 왕조의 귀족출신 청년이라는 설정뿐만이 아니다. 주인공 귀공자나 그의 첩들이 영위하는 생활 모습, 그를 둘러싼 거주 공간 등에서도 상당히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요소들이 모두 동일한 의미에서 ‘이향 동경’(異郷憧憬)을 나타낸다고 하더라도 ‘인어’의 존재와는 그 성격이 전혀 다른 것을 볼 수 있다. 전자가 신비하면서도 환상적인 세계임에 반하여 후자는 어디까지나 현실의 욕망에 뿌리를 둔 퇴폐와 방탕의 극치를 보여 준다. 다만 양자의 관계를 따지자면, 귀공자들이 여과 없이 보여 주는 극단적인 데카당스 분위기가 전제되지 않고서는 ‘인어’로 대표되는 비현실적인 세계를 구축할 수 없었을 것이다. 따라서 작자의 환상적인 이국정취 속에는 서양과 중국이라는 이중의 이향이 늘 존재하였고 이 양자 간의 화려한 교차야말로 끊임없이 ‘낭만적’인 작품을 창작할 수 있게 하는 밑거름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렇듯 다니자키는 그 출발기에 서양문학으로부터 새로운 정신적 ‘계시’를 받고서 ‘악’의 유미주의에 눈뜨게 되었다. 그리고 이후, ‘중국 소재’에 대한 일관된 관심으로 그 안에서 훌륭히 데카당스나 에로티시즘과 같은 요소를 찾아냄으로써 초기 창작을 성공시켰다. 이는 앞에서도 말하였듯이, 이른바 근대 국민국가의 논리를 완전히 반전시킨 형태라 할 수 있다. 고대 중국의 ‘타락’적이고 ‘향락’적인 측면에서 일종의 ‘퇴폐미’를 추출한 것만이 아니라 세기말적인 감성을 가지고 그것에 새로운 가치를 부여함으로써 막부말기 이래의 중국 ‘표상’을 완벽하게 뒤집은 것이다. 물론 뒤에서 다시 언급하겠지만, 다니자키의 이와 같은 일련의 창작 그 자체도 근본적으로는 여전히 일본을 중심으로 한 담론구조에서 크게 벗어나 있지 않다. 다만 기존과는 다르게 ‘취미’로서의 중국을 새롭게 구성한 점에 있어서 그의 독자적인 중국 발견 내지는 재발견의 ‘가치’는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막부 말기 이후 수많은 일본인이 기본적으로 ‘근대국가’라는 하나의 기준으로 중국을 ‘표상’하고 또 그 내용의 대부분이 현지에 대한 ‘상황’ 보고였음을 감안

할 때, 다니자키는 새로운 오리엔탈리즘의 시각으로 중국을 관찰하고 스스로 문학적 ‘담론’ 혹은 ‘표현’을 부여했다고 할 수 있다. ‘지나 취미’를 배경으로 태어난 다니자키의 새로운 중국 ‘표상’은 앞서 보았듯 초기 작품 단계에서는 일종의 ‘계기’나 ‘배경’으로 이용되는 등, 종속적인 것에 지나지 않았다. 그리고 그것이 일단 ‘고전’이라는 필터를 제거하고 ‘현실’의 대상과 직접 대면하면서 진정한 개화를 이루게 된다. 앞서 예로 들었던 『인어의 탄식』을 발표한 다음 해인 1918년 이루어진 다니자키의 대륙 만유가 그러한 새로운 전개를 가져다 준 최초의 여행이다.

1918년 10월 다니자키는 철도원이 발행한 가이드북을 손에 들고 단신으로 한반도를 경유해 두 달여에 걸쳐 중국 각지를 여행하였다. 그때 그가 방문했던 여행코스는 철도원 안내서에 실려 있던 ‘두 가지 경로’ 중의 하나였고 일정도 대체로 ‘주유(周遊) 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그대로였다. 즉 다니자키는 ‘제도’로서의 관광사업에 편승한 형태로 중국에 건너가긴 했지만 교묘하게 그 범위를 넘어서서 자신만의 중국 경관을 수없이 ‘발견’한 것이다.

다니자키의 말에 따르면 이 첫번째 중국여행은 “정확히 두 달에 걸친 여행으로 10월 9일에 도쿄를 출발”하였다. 그리고 “조선과 만주를 경유하여 베이징으로 가고 베이징에서 기차로 한커우(漢口)에 도착하여 한커우에서 양쯔강을 거슬러 내려가 주장(九江)에 들러, 거기서부터 루산(廬山)으로 올라갔다. 그런 후 다시 주장으로 돌아와 이번에는 난징에서 쑤저우(蘇州), 쑤저우에서 상하이로 간 다음, 상하이에서 항저우(杭州)로 가고 다시 상하이에 들른 후 일본으로 돌아오는” (『지나 여행』支那旅行, 1919년 2월) 여정이었다.

두 달 동안 이루어진 중국여행에서 다니자키는 기존의 책을 통해 이미지화 하였던 추상적인 ‘지나 취미’를 직접 체험하면서 보강하였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그때까지 크게 인지하지 못했던 새로운 ‘사실’들도 몇 가지 발견할 수 있었다. 새로운 ‘사실’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수향(水鄉) 인 강남(江南)의 존재’이다. 그는 ‘원래 산이 많은 곳보다 수향의 경치를 좋아하’(『쑤저우기행전서』蘇州紀行前書, 1919년 2월)는 취향 때문인지, 중국 남방에 위치한 ‘수향’을 보자마자 ‘완전히 반해’ 버렸다고 한다. 그 이후로는 여행길의 대부분을 전통적인 수로를 이용하여

‘수향’이 있는 강남지방을 편력하였다.

이상, 중국 표상에 대한 시대적 특징으로 제3의 흐름에 해당하는 메이지유신으로부터 50여 년이 경과한 다이쇼 중반 무렵의 내용을 살펴보았다. 이 시기는 국민들 사이에서 주변국에 대한 우월감이 싹트기 시작하면서 ‘여유’가 생겨나고, 일부 작가나 시인들이 새롭게 부흥하던 관광사업에 편승해 중국을 방문하면서 이전과는 다른 오리엔탈리즘의 시각으로 중국을 관찰하고 표현하기 시작한 때였다. 이런 거시적인 시대적 언어 공간 속에서 다니자키의 중국 ‘표상’, 그 중에서도 1918년의 중국체험과 관련된 ‘기록’과 ‘소설’을 확인해 보았다. 그 개개의 작품이 갖는 ‘의미’는 물론이고 그와 관련된 작가의 ‘의도’에 대해서는 불충분하기는 하지만 어느 정도 설명이 되었다고 생각하기에 되풀이하지는 않겠다. 다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강조할 것이 있다. 우리들이 항상 문제시하고 있는 ‘오리엔탈리즘’이나 ‘세기말적 감성’은 당연한 일이겠지만 모두 서양 대 일본이라는 폐쇄된 구조 속에서 발생한 것만이 아니다. 일본 대 아시아, 특히 ‘하위’로 여겨지기 쉬운 중국이나 조선과 같은 주변국과의 관계상에서 파급되기도 하였다. 그리고 전자와의 사이에서 생겨난 각종의 문학적 영위를 ‘수용’이라는 말로 단순화시켜 일본의 입장을 정리할 수 있다면, 후자 즉 일본과 중국, 조선과의 사이에서 이루어진 다양한 문학적 행위에 있어 일본은 분명 ‘발신자’의 위치에 놓여 있다. 그런 의미에서 ‘지나 취미’는 ‘오리엔탈리즘’과 ‘세기말적 감성’을 동시에 내면화한 일본인 작가의 중국에 대한 독자적인 문학적 관심에 의해 무엇보다도 능란하게 ‘활용’되었다. 또한 그 ‘활용’을 통해 점점 스스로의 문학적 ‘상상력’-‘창조력’을 확대시켜 갔던 주체가 바로 다니자키 준이치로로 대표되는 일련의 다이쇼 작가들이다.

3. 동경에서 위협으로 : 전쟁 이후와 오늘날의 중국 표상

1) 속죄적 중국상과 동경적 중국상

중국문학 연구자인 다케우치 미노루(竹内実)는 「쇼와문학에 나타난 중국상」(昭和文学における中国像)¹⁰⁾이라는 논문에서 전쟁 이전-쇼와 초기, 전시중-쇼와

10년대, 전쟁 이후의 중국상을 각각 혁명적 중국상, 공백적 중국상, 속죄적 중국상으로 특징지어 논평하고 있다. 혁명적 중국상은 주로 당시의 프롤레타리아 문학이나 일부 신감각과 문학에서 보여지는 1920년대 중국혁명 운동에 대한 표상을 말한다. 공백적 중국상은 전시중에 종군작가들이 중국에 대한 ‘무지, 무이해’를 르포르타주 형식으로 기록한 것을 가리킨다. 그리고 속죄적 중국상은 전쟁 이후 새로이 창작활동을 재개한 작가들의 중국에 대한 심정을 말한다.

전쟁 이전이나 전시중의 표상은 차치하고, 전쟁 이후의 속죄적 중국상에 대해서는 확실히 다케우치의 의견에 동의한다. 그러한 심정은 전쟁 이후에 일시적으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 이후로도 상당히 긴 시간에 걸쳐 많은 문학자나 지식인에게 의식적·무의식적으로 공유되었다. 그리고 여기에 한 가지 덧붙이자면, 이러한 속죄적 중국상에서 파생된 것이 ‘자기부정적 동경’¹¹⁾, 즉 공산당혁명이 실현되면서 그 성공을 일본의 현실과 비교하며 중국을 선진적이고 근대적이라고 평가하는 관점에 입각한 동경적 중국상이라는 점이다. 이하에서는 이 두 가지를 중심으로 전쟁 이후 이루어진 중국 표상의 변천에 관하여 간단하게나마 살펴보겠다.

우선 속죄적 중국상이다. 속죄적 중국상을 이해하는 데에는 무엇보다 다케다 다이준(武田泰淳)의 글이 가장 도움이 된다.

중일전쟁을 망각하고 중국을 논하는 것은 그들 중 어느 누구도 용납하지 못한다. 몇 만, 몇 십만이나 되는 중국 민중의 가정을 불태우고 형제를 살육한 그 전쟁에 대해서 언급하는 일은 고통이다. 입술이 일그러지고 심장이 뒤틀리는 고통이다. 그러한 암흑면이 그들의 일생을 덮고 있다.……이웃 국민의 혈조(血潮)와 비명과 저주가 폭풍같이 소용돌이치는 그러한 거대한 사실에서 그들은 출발하고 있다.¹²⁾

10) 竹内実, 『日本人にとっての中国像』, 東京: 岩波書店, 1992.

11) 溝口雄三, 『中国の近代をみる視点』, 『方法としての中国』, 東京: 東京大学出版会, 1989.

12) 武田泰淳, 『風媒花』, 『群像』 1952년 1月号~11月号, 東京: 講談社.

소설 주인공의 입을 빌려 말하고 있지만, 중국에 대한 깊은 죄의식은 훗타 요시에(堀田善衛)와 같은 전후파의 대표적 작가들의 작품에서도 확인된다. 결코 다케다만의 심정은 아니었던 것이다. 이런 죄의식에 대한 추구는 1970년대에 체결된 중일 간의 국교회복 이후까지 이어진다. 전쟁 이후의 일시적 충동에서가 아니라 양식 있는 많은 지식인에 의해 장기간에 걸쳐 회고되는 현상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바로 속죄하는 심정이 원동력이 되어 양국의 교류가 재개된 이후 여러 차례 문화인 대표단을 중국에 파견할 수 있었고, 혁명중국에 대한 호기심과 함께 일종의 이상향으로서의 중국상을 형성하게 되었다. 예를 들어 1956년 3월에는 가타야마 데쓰(片山哲)를 회장으로 하여 이사장에 나카지마 겐조(中島健藏), 그리고 아오노 스에기치(青野季吉), 우메하라 류자부로(梅原龍三郎),가와바타 야스나리(川端康成), 기무라 이헤이(木村伊兵衛), 구보타 만타로(久保田万太郎), 사토 하루오(佐藤春夫), 다케다 다이준, 다니자키 준이치로, 마쓰무라 겐조(松村謙三), 아마다 고사쿠(山田耕筰), 아마모토 겐키치(山本健吉)로 구성된 중일문화교류협회가 도쿄에 창설되었다. 이 조직이 향후 10년 동안 작가대표단 여덟 차례, 연극인 대표단 두 차례, 영화인 대표단 두 차례, 서도가 대표단 두 차례, 미술가 대표단 네 차례, 사진가 대표단 두 차례씩을 파견하였고 단원들은 중국에 대한 보고서를 남겼다. 그 내용을 일일이 여기에서 소개할 여유는 없지만 한때 '파리가 없는 나라'라고 하는 팔목할 만한 이미지가 널리 유포되었던 것을 봐도 알 수 있듯이, 보고서 내용의 대부분이 찬양에 가까울 정도로 긍정적이었다.

속죄적 중국상은 중국의 문화대혁명운동이 시작된 1966년 이후까지도 지속된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러한 심정 때문에 문화대혁명에 대한 진실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 가장 사실적이며 가장 충격적으로 진실을 전달한 것은 다름 아닌 저널리스트 혼다 가쓰이치(本田勝一)였다. 혼다는 1971년에 중국을 취재하면서 르포르타주 형식으로 「정상이 평평한 산」(「平頂山」), 「만인의 구덩이」(「万人坑」), 「난징」(「南京」), 「삼광정책」(「三光政策」, 1971년 8월~12월 『아사히신문』 연재)을 연재했다. 그리고 연재된 내용을 보충하고 편집하여 『중국 여정』(『中国の旅』, 朝日新聞社, 1972)이라는 책을 출간했다. 중국의 동북부지역과

화베이(華北)지역, 난징, 상하이 등을 40여 일에 걸쳐 답과(踏破)하고 전쟁 피해나 식민지 지배의 피해를 겪은 사람들을 직접 취재하여 그 생생한 증언을 기록한 것이었다. 이런 일련의 보고는 전쟁 이후 25년간 구태여 외면해 왔던 과거 일본의 치부를 드러낸 것으로 발표 당시부터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다. 확정할 수는 없으나 그 효과가 1년 후인 중일 간의 국교 회복기나 70년대 중반에서 80년대 전반에 걸친 '밀월'기에 불거졌던 여론 형성에 어느 정도는 영향을 주었다고 보인다.

물론 오늘날에 있어서는 1990년대 이후 '프티 내셔널리즘'의 고양과 함께 이러한 속죄적 중국상은 상당히 퇴색하였다. 일찍부터 적극적으로 가담해 왔던 『아사히신문』마저 '국익' 우선이라는 모토 아래 종래의 태도에서 후퇴했으며 이른바 '중국 위협론'에 서서히 가담하기 시작하였다.

다음으로는 이러한 속죄적 중국상에서 파생된 '자기부정적 동경'의 중국상이다. '자기부정적 동경'은 중국문학자인 다케우치 요시미(竹内好)가 제시한 이후로 많은 지식인에 의해 추인되고 보완되었다. 다케우치는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배한 일본의 현실을 당시 진행 중이던 중국혁명과 비교하였다. 그리고 양자가 서로 다른 결과를 맞게 된 원인을 서양에 대한 수용 방식에서 찾으려 했다. 그는 1948년 11월에 발표한 논문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전향은 저항이 없는 곳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다. 즉 본인이 자기자신이고자 하는 욕구의 결여에서 일어난다. 자기를 고집하는 자는 방향을 전환할 수 없다. 자기 길을 가는 수밖에 없다. 그러나 길을 걷는다는 것은 자기가 변하는 것이다. 자기를 고집함으로써 자신이 변한다. …… 그것은 낡은 것이 새로워지는 기회이기도 하고 반기독교신자가 기독교신자가 되는 기회이기도 할 것이다. 그러한 변화가 개인에게 일어나게 되면 회심이고 역사에 나타나게 되면 혁명이다. 회심은 형태상으로 전향과 비슷하지만 정반대의 방향성을 갖는다. 전향이 외부로 향해 나아간다면 회심은 내부로 파고든다. 회심은 자신을 지킴으로써 표출되고 전향은 자신을 방기함으로써 이루어진다. 회심은 저항을 매개로 하고 전향은 매개체가 없다. 회심이 일어나는 장소에서 전향은 있을 수 없고 전향이 일어나는 곳에서 회

심이 생겨날 수 없다. 전향의 법칙이 지배하는 문화와 회심의 법칙이 지배하는 문화는 구조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이다.¹³⁾

그리고 ‘형태상으로 일본문화는 전향문화이고 중국문화는 회심문화’라고 단정해 버린다. 1948년은 국공내전(國共內戰)이 한창일 때로 중국의 상황은 혼란의 극치였다. 그러나 그렇기는 하지만, 아니 그랬기 때문에 다케우치가 그 혼란 속에서 ‘회심’의 고뇌 또는 ‘희망’을 찾아낼 수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다음 해, 공산당혁명이 드디어 성공의 징조를 보이자 그는 자신의 ‘회심’론에 부연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이러한 역사의 흐름이 중국민족 고유의 운동으로 발전한 이유는 각 시대마다 선각자가 도입했던 외래사상이 내부로 침투하고 혈육화되어 강한 부정 정신을 지지하는 받침대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혁명중국인 중국민족에게 내재하는 근원적 힘의 발로였고 설사 외부의 힘을 빌려 와도 운동 자체는 항상 자율적이었다. …… 그래서 중국의 근대화는 일본과 비교했을 때 질적으로 다르게 진행되었다. 같은 후진국이라도 일본과 중국의 근대화는 서로 방식이 달랐다. 그 방식의 차이는 역사를 도식으로 환원해 사고하는 공식주의자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다. 그들은 질적인 것을 양적으로 변환하여 일본 근대와 중국 근대의 역사적 단계에 나타나는 차이만을 인정한다. 따라서 결국 중국에 대한 모욕감을 합리화하는 데에 머물고 심지어 소박한 모욕감의 신봉자인 침략자에게 이용당했다.¹⁴⁾

여기에서 다케우치는 중국과 일본이 서양을 수용할 때, 그 시간적 선후관계를 수량적 우열관계로 환원하여 사고해 온 청일전쟁 이후의 주류적 인식 배치에

13) 竹内好, 「中国の近代と日本の近代——魯迅を手がかりとして」, 후에 「근대란 무엇인가: 일본과 중국의 경우」(『近代とは何か——日本と中国の場合』)로 제목을 수정하여 도쿄대학교 동양문화연구소 편 『동양문화강좌』(『東洋文化講座』), 제3권 『동양적 사회윤리의 성격』(『東洋的社会倫理の性格』, 東京: 白日書院, 1948)에 수록.

14) 竹内好, 「伝統と革命——日本人の中国観」, 후에 「일본인의 중국관」(『日本人の中国観』)으로 수정, 『전망』(『展望』, 1949년 9월호, 東京: 筑摩書房)에 게재됨.

대해 통렬한 비판을 하고 나아가 ‘질적인 면’에서 양국의 상하관계를 뒤바꾸려 한다. 그리고 자신의 주장을 보강하기 위하여 그는 존 듀이(John Dewey)의 중국 인식을 인용하며 다음과 같이 전개한다.

듀이에 의하면 일본은 전통의 압력이 적었기 때문에 쉽게 유럽의 기술을 받아들이는 데 성공했지만 그 때문에 역으로 근저에 낡은 인습이 온존되었다고 한다. 중국은 전통의 저항이 심하였기 때문에 근대화하는 시기가 늦어졌지만 오히려 철저한 변혁을 이룰 수 있었기에 국민들의 심리가 혁신이라는 근원적인 기반 위에 성립될 수 있었다. 다시 말해서 장훤(張群)이 주창하던 ‘사상혁명과 심리건설’이 중국에서는 실현된 것이다.¹⁵⁾

근대화에 있어 중국의 이러한 ‘질적 우위’에 대해 다케우치는 후에 다시 한번 ‘내발’(중국)과 ‘외발’(일본)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양국을 차이화한다. 또한 그는 “일본 근대화의 핵심은 외부로부터 서구를 있는 그대로의 형태로 수입한 점에 있다. 그렇지만 중국에서는 민족적인 것을 중심으로 하여 창출해 왔다. 바로 이 점이 중국 근대화의 순수성이 갖고 있는 핵심이 된다”¹⁶⁾고 중국을 치켜세운다. 다케우치의 중국에 대한, 좀더 확정하여 혁명중국에 대한 동경은 본인의 첨예한 의도를 철저히 한 형태로 당시의 지식인, 특히 패전 이후 일본의 진로를 두고 고민하고 있던 지식인들에게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 또 한때는 상당히 보편적인 심정으로서는 작용하기도 하였다. 앞에서도 언급했던 문화인대표단을 중국으로 잇따라 파견한 배경에는 속죄의식과 함께 이러한 동경의 심정도 충분히 깔려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1990년대에 중국과 일본 지식인 간의 ‘지적 공동체’ 형성을 내세우며 양국의 학계에서 대활약을 하던 미조구치 유조(溝口雄三)는 자신을 “중국혁명에 촉발되어 중국 연구의 길로 들어선 사람 중의 하나”로 규정하며 자신을 포함하여

15) 竹内好, 「伝統と革命—日本人の中国観」.

16) 武田清子, 「方法としてのアジア」, 『思想史の方法と対象—日本と西欧』, 東京: 創文社, 1961.

“전시중이나 전쟁 이후 등장한 중국 연구자 대부분에게는 중국에 대한 비판적 시점이 결여되어 있었다”고 한다. 그렇지만 당시 그들에게 “유력한 정신적 지주가 되었던 것 중의 하나가 다케우치 요시미 씨의 『루쉰』(魯迅)이나 「중국의 근대와 일본의 근대」에서 대변되고 있는 중국관이었다”고 밝히고 있다.¹⁷⁾ 물론 미조구치는 이 시점에서 후에 문화대혁명을 찬미하였던 자신들의 동경적 중국관을 반성하고 다케우치가 제시한 전향일본과 회심중국의 구도가 “세계사를 유럽 중심으로 인식해 온 근대 이후의 유럽적 입장에서 본 일원적인 시점”¹⁸⁾을 벗어나지 못한다고 비판하였다. 그리고 중국과 일본 모두 종래의 ‘세계’ 전체를 상대화하고 보다 ‘고차원적인 세계상’을 창출해야 한다는 ‘방법으로서의 중국’¹⁹⁾을 제창하였다. 이는 다케우치의 ‘방법으로서의 아시아’를 비판적으로 계승하고 기존의 동경적이었던 구도를 철저히 상대화함으로써 귀착하게 된 새로운 지점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전쟁 이후 일본에서 오랫동안 공유되어 온 속죄적 중국상, 동경적 중국상은 1980년대가 되면서 문화대혁명의 혼란상을 비롯한 여러 내부적 ‘진실’이 드러나고 또 중국도 40년 전의 ‘혁명’을 부정하고 서양, 더 나아가서 일본적인 근대화를 지향하기 시작하면서 그 ‘질적 우위’를 단번에 상실하고 원래대로의 ‘선후적 우위’ 질서로 돌아가 버렸다. 그렇기 때문에 마치 메이지 이후의 노정을 역행하는 듯이 한동안은 일본을 배우는 근대화의 ‘열등생’으로 동정을 받고 그 낙후성도 일종의 ‘향수’처럼 취미화되어 버린 상태에서 21세기 이후의 급속한 경제성장을 계기로 이번에는 ‘위협’(모멸의 반대—미조구치)의 대상으로 변모하게 된다.

2) 동경에서 위협으로

근년에 들어 영토문제나 자원개발과 같은 ‘국익’문제가 복잡하게 얽혀 있기도 해서 이른바 ‘팽창’하는 중국에 관한 논의가 그야말로 홍수처럼 일본 언론계에 흘러 넘치고 있다. 서적 검색사이트인 아마존에서 ‘중국’이라는 키워드를 입력하면 약

17) 溝口雄三, 「中国の近代をみる視点」.

18) 溝口雄三, 「中国の近代をみる視点」.

19) 溝口雄三, 「中国の近代をみる視点」.

43,000점에 달하는 검색결과가 표시된다(2012년 1월 5일 현재). 그 중에서 극히 일부인 ‘객관적’인 학술서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서적이 ‘중국 붕괴론’이나 ‘중국 위협론’을 주장하는 것들이다. 그러나 붕괴설이나 위협설 이 둘은 일견 상반하는 듯이 보이지만 실은 같은 심정에서 발로된 양태임을 알 수 있다. 양쪽 모두가 지금까지의 서양수용과 근대화의 선후적 우열관에 기초해 있다. 다만 전자는 해결 할 문제점(인종, 격차, 버블경제, 민족문제 등)이 산재해 있기 때문에 붕괴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후자는 치우친 ‘근대국가’의 발양(정치체제, 군비, 자원획득, 해외투자 등) 때문에 위협이 될 것이라고 경고한다. 결국 표현 방식은 다르지만 인식 자체는 청일전쟁 이후에 성립된 구조와 완전히 일치한다고 해도 좋다. 이는 다케우치와 미조구치가 열심히 비판해 왔던 전쟁 이전의 ‘중국 없는 중국상’과 전혀 다르지 않을 뿐더러 이의 재생산에 지나지 않는다. 일찍이 다케우치는 이러한 현상을 두고 우려의 말을 남긴 바가 있다.

일본에서 몇 백만의 군사가 진군했는데——나도 군대 경험이 있지만, 이 사람들이 무엇을 보았나 하면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 인간의 관찰 능력이란 매우 미덥지 못해 보인다. 스스로에게 문제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그저 중국 땅을 밟기만 한다고 해서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아무리 많은 사람이 간다고 해도 중국의 사정을 알 수 없다.²⁰⁾

다케우치의 이 말은 수정되어야 할지 모르겠다. 자신에게 문제의식이 없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처럼 ‘우열’의 질서 위에 가부좌를 틀고 앉아 있기 때문에 볼 수 없는 것이다. 전쟁 이후라는 시공간을 뛰어넘어서 60년 전의 상황이 그대로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밖에 생각할 수 없다. ‘일본 연구자’로서 그저 향후가 염려될 따름이다.

20) 竹内好, 「方法としてのアジア」, 武田清子 編, 『思想史の方法と対象—日本と西欧』, 創文社, 1961.

* 이 글의 원문은 일본어로 작성되었으며 박이진(한양대학교 강사, 박사 후 연구원)이 번역하였다.

과정 속에서 일본 특히 지식인들의 반성적 사유와 사상과제의 기획이 역사와 현실의 역학 관계 속에서 변화하고 있음을 주장하고자 한다.

주제어: 일본, 중국, 사상, 지나, 중국 인식, 중국 연구, 중국학, 다케우치 요시미, 미조구치 유조, 아마무로 신이치

모멸, 취미, 그리고 동경에서 위협으로 : 근대일본 지식인의 중국 표상 | 류젠후이

투고일자: 2012년 1월 9일 | 심사완료일자: 2012년 1월 17일 | 게재확정일자: 2012년 1월 26일

최근 중국의 국력이 점차 증대되면서 일본에서 소위 ‘중국위협론’이 거의 범람이라 해야 할 정도로 각종 미디어에 넘쳐나고 있다. 메이지유신 이래 150년을 돌이켜보건대, 중국이 이 정도로 일본 앞에 우뚝 선 적은 한 번도 없었다. 그런 점에서 지금의 상황은 일본인으로서의 역사상 최초로 조우하게 된 사태이고, 그에 대한 반응 가운데 하나로 ‘중국위협론’, 또는 그 거울상으로 ‘중국붕괴론’이 갑작스레 등장하고 있다는 점도 그리 이해하기 어려운 일은 아니다. 다만, 중국에 대한 이런 일련의 인식이 진정 중국의 역사, 특히 근대 이후의 역사를 충실히 검토하여 이성적으로 얻어진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생각해 보면, 메이지 이래의 일본은 일관되게 서양수용, 즉 근대화의 시간적 선후관계를 수량적 우열관계, 나아가 질적 우열관계로 치환하여 중국을 관찰하고 인식해 왔다. 그 결과, 줄곧 근대국가의 논리에 서서 중국을 모멸하거나 취미의 대상으로 상정해 왔으며, 또 전후에는 일시적으로 동경의 대상으로 삼았던 적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인식들은 모두 한때 거대한 ‘제국’이었던 나라가 1백 년에 걸쳐 붕괴하고 또 다른 1백 년에 걸쳐 하나의 국민국가로 재건해 온 과정을 무시하거나 이를 정확히 인식할 수 없었기에 생겨난 오해에서 비롯된 허상일 따름이다. 그리고 오늘날 범람하는 위협론은 말하자면 이 허상이 낳은 당연한 귀결이자 그 결정판일 뿐이다.

물론, 필자가 이렇게 판단한다고 해서 현재의 중국, 특히 그 ‘팽창’에 문제가 없다는 것 인가 하면 결코 그런 의미는 아니다. 거대‘제국’이었던 중국이 하나의 ‘국민국가’로 재건하는 과정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심각한 모순과 혼란, 폭주가 발생했고 지금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점은 매우 분명한 사실이다. 문제는 이런 여러 현상에 어떻게 역사성을 부여하여 그 내적 논리를 포착할 것인가에 모든 것이 달려 있다고 해도 무방하다.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일본은 오늘날에 이르러서도 여전히 전전과 마찬가지로 ‘중국 없는 중국상’을 계속 양산해 내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주제어: 중국표상, 국민국가, 아이덴티티, 중국취미, 속죄의식, 혁명, 동경, 위협론

present essay analyzes in broad perspective those texts which show the changing viewpoint of the perceiver, Japan, in the midst of the formation and development of China study in Japan before and after the war. Furthermore, it suggests that China study confronts China as object and method of study on the one hand and task of thought on the other, and that Japanese intellectuals' reflective thought and their setting-up of task of thought are changing amid the dynamic relation of history and reality.

Keywords : Japan, China, Japan's Sinology, Japan's viewpoint on China, China Study, Takeuchi Yoshimi, Mizoguchi Yuzo, Yamamuro Shinichi

From Despising, Relishing and Longing to Fearing—How Modern Japanese Intellectuals Have Represented China _ LIU Jianhui

In recent years, witnessing the ever-intensifying growth of China's national power, the idea of "China as a threat" predominates Japanese media. For the last 150 years since Meiji Restoration, China has never been this much of a threat to Japan. It is not difficult to comprehend such rise of debates as "China as a threat" as well as "China-collapsing theory", considering that Japan has never faced such high degree of current shifts surrounding its region. The problem, however, is that it is questionable whether such series of perception toward China today are truly based on the logical understandings toward China's history, especially of the modern period.

Since the Meiji period, Japan has observed and perceived China based on its quantified as well as qualitative dominant-subordinate relationships which, with the growing receptiveness towards the West that took place during Japan's modernization process, had replaced the contextual understandings based on the chronological timeline. Accordingly, Japan adopted every reasoning of the modern states to project China as the object of despising, relishing, and longing (which dominated only for a short while after the end of the WWII). However, all these projections can only be described as either the "virtual image" or the "misunderstandings" as the result of ignoring or failing to obtain a genuine recognition of the hundreds of years of process, during which the collapse of the mammoth "empire" and the reconstruction of a single nation-state took place. And today's perception of "China as a threat" is nothing but a natural apodosis of such previous misconceptions toward China.

I am not trying to argue that the "rise of China" is without its problems.

There is no question that the process of transformation—from what used to be a mammoth “empire” to today’s “nation-state”—has left China with contradiction, disorder, and insurgent that prevail its society today. The task is how to historicize these series of phenomena and understand their internal logic. It seems that Japan today is continuing to produce an “image of China without China.”

Keywords : representation of China, nation-state, identity, China-relishing, sense of atonement, revolution, longing, China as a threat

The Emergence of China and Changes of Chinese Community in Japan

_ SON An Suk

This paper analyzes emergence of China as the major power in Northeast Asia in terms of movement of overseas Chinese(華僑) and international Chinese students. Since the 1980s, China’s economic development’s huge impact on Northeast Asia and the world economy is undeniable. How does this emergence of China affect Chinese communities in Japan? This paper outlines overseas Chinese communities and its changes concentrating on Nagasaki(長崎) in the Meiji era, Kobe(神戸) in Taisho era, Yokohama(横浜) in Showa era, and then introduce dramatically increasing Chinese students in Japan by statistics from Immigration Bureau of Japan Admission(日本法務省入国管理局) and Japan Immigration Association(入管協会) since the reform and opening-up of China.

By introducing Chinese community which began to form in Tokyo Ikebukuro(池袋) in 1990, this paper shows how Japanese society responded to new foreign communities’ formation through a magazine called The immigration newsmagazine(『国際人流』) which is being published by Japan Immigration Association. After the 1980s’ reform and opening up, on the basis of economic power in Northeast Asia, China is emerging as a superpower. This paper studied whether this status of China can overcome model of Japan as a good student, and propose a new model. This paper attempts to examine Japan’s current status by whether Chinese or foreign communities are acceptable in Japanese society, which since the modern nation-state, have pursued homogeneous ethnic group nation. How the single ethnic consisted and therefore strongly homogenous society reacts with formation of a foreign community is not only Japan’s concern, but also reflects our own self-portrait.